

금강산 관광이 민족 화해에 미치는 영향

이중석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금강산 관광은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남쪽의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인적 교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실현은 그 자체로서 남북한 민간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은 북한 최고 당국자의 확인 아래 추진되는 교류라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금강산 관광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에 미칠 영향은 첫째, 금강산 관광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화의 논의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남북간의 적대성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남북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북한 변화를 촉진하고 개방을 유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금강산 관광에 비추어본 남북 경험의 과제는 첫째, 우리는 '시혜적 차원'에서 사고했던 남북 경험을 '경제의 합리성에 기초한 남북한 상호 이익 구조의 창출'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이 경험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이용하지 않고, 시장 경제 논리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각을 전환시키고 이를 관행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험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행여 있을 수도 있는 국내 기업간의 과당 경쟁은 자제되어야 한다. 넷째, 현대는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대북 사업이 남북 접촉과 경험의 긍정적인 선례로서 작용하도록 애써야 한다. 다섯째, 경험 등 민간 교류가 책임있는 당국자간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의 제기

그 금강산은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천하 명산이다. 그곳에는 빼어난 절경이 있고, 아름다

운 전설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짙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오늘 금강산 관광 뱃길을 축원하

는 데는, 이 길이 단순한 유람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관광이 광범한 남북 교류를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서이며, 그를 통해서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시키고 형제간에 화해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89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래 남북 관계의 냉온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논의되어왔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의 세부 추진 사항(설악산-금강산 연계 관광 개발)으로 명시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던 '희망 사항' 이었다.

사실 금강산 관광 사업 문제가 공론화된 이래 지난 여름까지 약 10년간 이 사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긴장 완화와 호혜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금강산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현 가능성에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북한이 그들로서는 군사 안보상 敵接地域인 금강산 지역을 개방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아울러 금강산은 북한에게도 그들이 자랑하는 명산인데, 여기에 매년 수십만 명의 남한 관광객

이 방문한다는 것은 체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리라는 전망도 우세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실현 단계에 이르자,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 못지 않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관광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북한의 빈번한 도발을 들어서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잠수정 및 무장 간첩 침투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다시 간첩선 침투를 시도했으며, 이산 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인식론적으로 볼 때, 남북간에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토대 위에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도발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은 불가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를 갖고 있으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의 도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평화와 화해 협력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호전성 감소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 사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

북한의 호전성을 들어서 금강산 관광 사

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장에는 이 사업을 일종의 시혜적 관점에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한의 당국, 그리고 현대가 이익과 손실이라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가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과 간접적인 체제 위협 의식을 감수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우려해온 위협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절박한 체제 위협 요소인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화(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위협 의식과 필요한 달러를 교환하기로 한 것이다.¹⁾ 반면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안정적인 화해 협력 관계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긴장 완화를 추구하고 북한을 평화와 개방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 속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의 경우, 궁극적으로 기업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현대는 사업 성격상 상당한 경제적 위험 부담을 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정부에게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듯 금강산 관광은 일방

의 시혜가 아니라 각 주체들이 서로 대차대조표를 교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우리의 경제 현실을 들어 금강산 관광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가져다 줄 유무형의 경제적·정치적 효과와 우리가 통일 문제를 풀면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전략적 추진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 현실론적 입장에서 가해지는 비판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정경 분리에 기초해서 금강산 개발을 맡은 현대가 철저히 경제적 이윤의 논리에 따라 북한과 협상하고, 어려운 우리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절약 지향적인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협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협의 정치적 전략 효과 문제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며, 개별 기업은 철저히 이윤 추구의 관점에서 대북 사업을 사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경 분리의 참 내용이다. 개별 기업이 경제 논리 대신에 정치 논리로 북한을 대한다면, 또 다른 政經 연계인 經政 연계적 발상으로 정경 분리와 배치되는 것이다.

1) 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 요금이 북한의 군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사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통제도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현안 과제가 식량난 해결인 점을 감안할 때, 금강산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은 식량난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해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나름대로의 합리적 논거와 변화된 정세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만만치 않다. 이에 대응해서 필자는 본 고에서 금강산 관광의 필요성과 성공 조건을 전체 남북 경협과 민간 교류라는 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금강산 관광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에 미치는 순기능적인 측면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가 이 사업을 비롯한 제반 경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구하거나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전제로서 남북 경협과 교류의 기본 조건이 되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그 양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금강산 관광과 '북한 변화론'

북한 변화의 구조적 필연성과 남북 경협의 가능성

금강산 관광 사업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김정일 면담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 안정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지난 10월 2차 방북에서 북한의 대남 실무 총책인 김용순의 초청을 받았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

남과 국가 수반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차례로 만나 금강산 문제를 포함한 경협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실무 책임자→의전 상의 국가 대표자→실제 권력자인 국가 수반의 순서로 이루어진 그의 면담은 김일성 사망후 최초의 절차적 완전성을 갖춘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도 이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대남 경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개방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분명히 남북 경협에 적극적인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갈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잠수정 침투, 인공위성 발사, 강경 논설 발표, 간첩선 침투 시도 등을 통해서 종종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개방'이라는 용어에 극도의 혐오감을 내보이며 이른바 '우리식사회주의'의 고수를 천명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방에 대해서 혼란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허장성세와 달리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주목할 만한 변화를 해왔다. 물론 북한 변화의 잣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화가 미미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

인 안목에서 볼 때, 북한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를 해왔다.

사실 북한의 개방 지향적 정책 변화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내부 자원의 고갈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대내외적 도전 앞에서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북한은 그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개방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김정일 지도부가 '불가피한 변화의 선택' 시기에 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김정일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그의 주관적 의지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흔히 말하듯이 김정일은 변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을 외치는 그에게 개방은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남북 대화는 '조선혁명'의 포기 받아들이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주관적 의지를 현실에서 좌절시키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자원 고갈이라는 객관적인 환경이다. 김정일이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용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독재자가 자신의 의지를 정책으로 실현시

키기 위해서는 그 실현 수단(즉, 가용 자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그 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에게 외부 세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대라는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지만, 脫냉전의 현 상황에서 그것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며, 그것도 효과가 불확실하고 매우 위험한 가용 자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정일에게는 변화 이외에 달리 선택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구조-행위자 분석 틀을 통해본 김정일의 정책 선택 폭이다. 아직 김정일은 그의 주관적 의지와 환경적 강박 요인이 교차하면서 정책적으로 우왕좌왕하며 '之'字形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정책 변화 방향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²⁾

이제 국가 기구를 정비하여 자신의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김정일로서는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변화를 더욱 절실하게 요구받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북한은 내부 경제 자원의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북한과 같은 개인숭배체제 아래서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수령이 대중에게 충성과 효성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최소한의 물질적 삶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점차 대중의 수령에 대한 '전지

2) 이종석(1998. 9.7), "주석제 폐지와 김정일 정책", 「한국일보」.

전능한' 이미지는 훼손될 것이며, 이는 곧 개인승배체제 자체를 뒤흔들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지도부는 공식 언론 매체들을 동원하여 종종 김정일의 교조적이며 주관적인 사회발전관과 세계 인식을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실제 정책과 교조적인 공식 담화 사이의 모순은 1년에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 세계로부터 지원받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금과옥조처럼 외치는 자가당착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고 있다.³⁾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서 변화를 선택하고 있으며, 김정일과 정주영 명예회장과는 면담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발언이나 지시는 곧 법률 이상의 효력을 지닌 '교시'라는 점에서 북한의 남북 경협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오늘날 북한의 사정은 경협을 비롯한 남북한의 민간 교류 협력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북한 지원을 둘러싼 수요-공급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분석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즉, 북한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위기로 자신이 외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경제적 도움(=수요)과 외부의 실질적인 지원(=공급) 사이의 불일치 심화로 곤란을

겪고 있다. 유력한 자금 유입선인 일본, 홍콩 등의 경제 침체와 식량 및 기초 원자재 지원 국인 중국 경제의 불안정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비록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나 나름대로 북한과 경제 협력의 용의를 가지고 있는 남한과의 경제 협력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남북 관계 개선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경제의 위기 해결과 관련해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 계획이 붕괴되고 각급 사업 단위가 자력갱생을 추구하는 현재의 북한 상황도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중앙으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각급 사업 단위는 자력갱생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나, 역시 내부 자원의 고갈로 외부와의 교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새로운 헌법은 무역 단위를 국가에서 사회 협동 단체로까지 확대해 이들의 대외 교역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저변 단위에서의 광범한 남북 민간 교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쪽

3) 이종석(1998, 11.14), "북한의 권력 구조 재편과 대남 전략", 「남북 협력과 국가 안보」, 한국정치학회 남북 관계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p. 11.

파트너들은 남북 교류가 선물 교환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 단위나 스스로의 개인적 이익 증대와 연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것 역시 민간 교류의 증대 가능성을 높여 주는 대목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남북 민간 교류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의 대남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대북 정책에 대응해서 전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북한이 현대그룹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경협에 적극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향후 남북 교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응해온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 정착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대북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햇볕론으로 상징되는 대북 포용 정책이다. 이 정책은 강력한 안보 태세(대북 억제력)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에 화해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북한을 평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해나간다는 정책이다.

대북 포용 정책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변화로 끌어내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열지 않으려는 북한의 문을 억지로 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개방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는 문을 보다 넓게 열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대북 노선으로서, 남북 관계를 특징 지우고 있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 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역시 동시에 수행하려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정책에 어떤 반응 보여왔나?⁴⁾ 외형상 북한은 지난 4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이 결렬된 이후 우리의 대북 정책을 맹렬히 비난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공식 담화에서 그들의 변화를 찾기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대남 정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들의 대응이 3단계에 걸쳐서 변화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제1단계는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인 3~4월의 대남 대응으로, 이때 북한은 대북포용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던 것 같다. 이때 북한은 새정부가 정부 차원의 조건없는 적극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할 정

4) 이하의 논의는 이종석, 앞의 글, pp. 13~16 참조.

도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단순한 대북 지원 노선 정도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국자회담에 나온 것 자체가 남한 정부에 대한 하나의 선물로 인식했으며, 자신들이 요구하는 비료 20만 톤은 당연히 제공받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북경차관급회담에서 김대중 정부가 비료 제공 대신에 이산 가족 재회를 위한 진일보된 합의를 상호주의적 조건으로 내걸자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2단계는 북경회담 이후 남한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5~8월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5월부터 '햇볕 정책'도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강하게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에 "더이상 기대할 것도 지켜볼 것도 없다"⁵⁾든가 김대중 정부 5 개월 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⁶⁾는 투로 남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일체의 당국자간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제3단계 대응은 대략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9월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단계 대응 시기의 중

요한 특징은 대북 포용 정책의 전면적 부정 대신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포착하여 활용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적 실용주의 채택이라는 내부적 변화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 변화, 그리고 미국의 대북강경론 부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세 요소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 북한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은 잠수정 침투 사건, 무장 간첩 변사체 사건, 인공위성 발사 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김대중 정부가 과거 정권과는 달리 신중한 대응을 하며, 일관되게 포용 정책을 구사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현 정부의 反對決 정책의 진의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지 않은 곡절과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경 분리 원칙 아래 현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줄곧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확고한 정경 분리 정책의 의지를 읽었으며, 자신들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감성적 대응을 자제하는 정책 기조를 '현실'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5) 중앙방송(1998. 5.30).

6) 「로동신문」(1998. 7.30).

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이 적대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⁷⁾

북한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대남 경험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 시절처럼 '막무가내식 대북 정책에 맞선 막무가내식 대남 정책 구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전적인 대남 비난은 그대로 하면서도 남한의 정경 분리 정책을 역으로 활용하여 민간 수준에서 '돈이 되는 교류'와 경험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 성과와 김정일의 남북 경험에 대한 관심 표명은 북한의 변화된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 전환은 미국 조야에서 불고 있는 대북강경론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내부 경제 자원의 고갈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 경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처지에서 미국의 대북 여론이 강경론으로 기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⁸⁾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봉쇄 정책을 구사할 대북 강경책을 선

택할 경우, 이는 대외 관계 확장을 추구하는 북한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강경론으로 선회할 경우 서방에서는 한국 정부만이 대북포용론의 입장에 있게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 포용 정책을 구사할 때, 김대중 정부가 강경론을 구사하는 것은 국제 사회가 남북한의 갈등을 양비론적 입장에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 역학상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한미 모두가 강경론으로 선회하는 것은 북한에게 매우 위험하다. 현재 美 행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을 불신하는 조야의 강경론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강경론으로 돌아서면 북한은 외부로부터 자신이 완전 봉쇄당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로서는 미국의 대북 여론이 강경해질 때, 한국의 대북 정책마저 강경책으로 몰고 가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합리성이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포용 정책을 변경시키려는 북한의 기도는 국제 사회의 대북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7) 물론 북한은 대북 포용 정책('햇볕 정책')에 대한 국내적 비판에 편승하여 대남 전술적 차원에서 이 정책을 자신들의 "내부를 외해해보려는" 정책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8)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10월에 열린 4총회담 2차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일단 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데서 잘 나타난다. 북한은 4총회담에 임하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구사하는 클린턴 행정부를 더 이상 끈관하게 만들어서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카드다. 특히, 북한이 도발적 분쟁을 일으켜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론을 좌절시킨다면, 그것은 곧 미국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 국제 사회의 대북 여론이나 국제 역학으로 볼 때,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전면 부정보다는 내면적인 부분 인정을 통한 활용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⁹⁾

금강산 관광이 민족 화해와 평화에 미치는 영향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것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와 교류 협력 관련 부속 합의서의 실천이라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남쪽의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인적 교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실현은 그 자체로서 남북한 민간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은 북한 최고 당국자의 확인 아래 추진되는 교류라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서는 금강산 관광이 원만하게 계속 추진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금강산 관광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화의 논의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근방의 긴장 고조 지역을 적대 세력인 남한의 관광객들에 개방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그동안 첨예하게 대치해온 휴전선 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한 평화의 제도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간의 적대성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와 접촉은 양측 주민들의 적대감을 씻어내

9) 물론 이러한 전망이 ‘금창리 지하 핵실험 시설’ 접근 문제의 해결 방향에 따른 단기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한 예측은 아니다.

며,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평화 정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와 '보다 많은 교류'는 통일로 가는 가교이다. 금강산 관광은 바로 이러한 모토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는 남한 사람들을 단순한 적대 세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업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남쪽 사람들의 금강산 관광 소식에 접하는 북한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남한에 대한 불신과 부질없는 적개심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쪽 사람들도 금강산 관광이 북한에 대한 필요 이상의 왜곡된 편견을 불식하고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남북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경제 본연의 입장에서 볼 때, 현대그룹과 북한이라는 양 사업 주체의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남북한은 호혜적 경제 관계의 구축에 확신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금강산 관광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호혜적 경제 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그만큼

제고시켜줄 것이다. 북한에는 저렴하면서도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리고 남한 경제는 현재 북한 실정에 맞는 중급 기술을 이용한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 조정과 해외 투자 부문의 철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대북 투자 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 부합으로 인해서 남북한은 서로가 지닌 보완적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의 경쟁력 창출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경협 활성화는 북한을 통한 대륙으로의 직접 진출을 가능케 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공간 감각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협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한쪽의 일방의 시혜적 관계가 아닌 남북한의 호혜적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호혜적 경제 관계는 현재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통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북한 변화를 촉진하고 개방을 유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현재 방충망식 선택적 개방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변화를 추구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시장 경제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싶어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논

리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이 북한 지도부의 의도를 넘어서 체제 개방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북한이 개방·개혁을 통해서 체제가 보다 민주적이고 시장 경제 지향으로 된다면 그만큼 남북간의 긴장은 완화되고 평화체제의 구축도 쉬워질 것이다.

다섯째,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금강산 관광은 당국자간의 남북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관광 사업의 성패가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의 광범한 남북 교류는 자연스럽게 당국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촉발시키게 된다. 이는 교류 자체를 통해서 상호 이해가 깊어지면 그 자체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직접 느끼게 되고, 남쪽 정부가 자신의 체제를 와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그들은 전반적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분쟁이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이것 역시 당국자간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강산 관광은 정부 차원에서는 대북 포용 정책의 기본 내용을 이루는 정경 분리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의 방향은 현상 유지적 방법으로 분단 상태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며, 현상 변경적 수단으로서 정경 분리를 통한 교류 및 경협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금강산 관광은 후자의 차원에서 북한 변화의 유력한 수단인 교류 및 경협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정치·군사적으로 치열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재의 냉전적인 분단 구조 하에서 남북간의 정치 협상은 성사되더라도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교류는 밑으로부터 적대감의 해소와 신뢰 회복을 촉진시킴으로써 정치적 교류를 가능케 하는 토양을 만들어갈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로 인해 북한이 민간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바로 여기서 제기된 정책 기조가 정경 분리이다. 정경 분리는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정부 관계와 민간 관계를 분리 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경 분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남북 교류의 확대가 전반적인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며, 남북간의 민간 네트워크 형성은 궁극

적으로 당국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결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¹⁰⁾ 따라서 정경 분리는 우리가 脫이념의 실용주의적 질서가 지배하는 脫냉전시대에 적응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정경 분리는 교류를 열망하는 국민적 희망을 수용하는 것이며 그동안 불안정했던 남북 관계를 민간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좀 더 안정화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당국자간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민간 교류를 통해서 쌍방의 위협 인식을 감소시키자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 민간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제 과시적인 북한 변화의 요구 대신에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다차원에서 남북간에 광범한 접촉을 실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 변화를 유도 하자는 것이 정경 분리 정책이다. 금강산 관광은 바로 이 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지금까지 지적한 금강산 관광이 남북 관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들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반면에, 만약 이 사업이 북

한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에 실패하여 지지부진할 경우, 금강산 관광은 역설적으로 2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시대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먹구름을 드리울지도 모른다. 그만큼 금강산 관광은 새로운 남북 관계를 열기 위한 남북경협시대의 시험대이다.¹¹⁾ 따라서 사업 주체인 현대나 정부에게는 금강산 관광의 합리적인 순항을 위해서 면밀한 계획과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금강산 관광에 비추어본 남북 경협의 과제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사에 새 장을 열며 1998년 11월 18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제 많은 국민은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분단 고통의 상징인 휴전선을 가로질러 놓여져 긴장 완화의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 사업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으로 이어지고 민족의 숙원인 이산 가족 상봉의 장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민족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제 금강산관광시대의 개막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남북 경협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10)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pp. 263~264.

11) 이종석(1998. 11.3), "시론: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협의 시험대", 「동아일보」.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의 개막도 멀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금강산 관광 사업에 비추어 성공적인 경협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하거나 극복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우리는 '시혜적 차원'에서 사고했던 남북 경협을 '경제의 합리성에 기초한 남북한 상호 이익 구조의 창출'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이번 금강산 사업도 현대는 기업 이윤을 확보하고 북한도 경협을 이익을 체감하는 것이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익이 될 때, 북한은 경협이 그들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잘 사는 길이라는 점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사실 IMF체제는 우리에게 남북한 당국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레버리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따라서 이제 IMF체제는 남북 관계의 성격을 '남한에 의한 북한에 대한 일방적 시혜'에서 '남북한 상호 호혜'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호혜적 남북 관계의 구축을 통한 상호 이익 구조의 창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IMF체제는 남북 관계에서 감성적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그동안 '민족'이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어

는 정도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비경제적인 정서적 측면에 치우친 대북 사업 발상은 억제되어야 하며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원래 목적에 기초한 합리적 대북 투자가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기업이 철저하게 이윤을 계산하며 대북 진출을 기획할 때, 정부가 평화와 형제애적 관점에서 화해 협력의 대북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교류는 일방적인 시혜적 성격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어려우며, 제도화도 쉽지 않다. 결국 교류의 장기화와 제도화를 위해서도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호혜적 교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쪽의 북한에 대한 '무조건 주기' 식이나 '일방적 짝사랑'이 아닌 서로 얻는 게 있는 교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경협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이용하지 않고, 시장 경제 논리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각을 전환시키고 이를 관행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이 모든 남북 경협을 정치 논리에서만 본다면, 이 경협은 정치 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제도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 논리 체득은 우리 경협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금강산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북한에게 하나의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금강산 관광 모집의 저조에는 경기 상황과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잠수정과 간첩선 침투 등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와 북한이 제시한 까다롭고 무례하기 초차한 관광 세칙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는 관광에 양호한 분위기 조성 및 시장 경제 논리에 부응하는 경협 자세없이 북한이 자랑하는 어떤 자산도 남한이나 서방에 장사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아마 이번 일은 그들이 문을 열면, 어떻게 해도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착각¹²⁾에 빠져 있던 북한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현대는 차후 협상에서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산이 생각보다 효용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냉철함과 단호함, 그리고 여유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현대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북한이 일방적인 정치 논리로 이 문제를 보는 한, 결과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북한이 시장 논리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에서 각 사업 주체는

매사에 신중한 대북 협상과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각 교류 단체도 시장 논리에 기초한 교류를 관행화하도록 교류를 구걸하듯이 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북 접촉을 함으로써 북한이 일정한 합리적 교류 관행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의연한 교류는 ‘교류의 상품화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오늘날 북한은 교류를 마치 돈으로 환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교류 단체들의 대북 교섭이 ‘교류 구걸’로 비춰진 데서 연유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격을 잃지 않는 당당한 교류가 필요한 때다. 즉, 보다 의연한 교류 추진으로 북한에게 마치 ‘교류를 해주는 것이 그들이 배푸는 시혜’인 양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협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행여 있을 수도 있는 국내 기업간의 과당 경쟁은 자제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업이 교류에 참여하고, 이 교류를 시장 경쟁의 논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북 사업의 특수성으로 미루어볼 때, 기업간 조율이나 정부의 중재 등을 통해서 과당 경쟁은 지양해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이 아직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치우쳐 있으며, 동일 사업을 둘러싸고 복수 기업이 경쟁할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대가

12)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거나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서방 자본의 대북 진출이 봇물 터지듯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몸값)를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과당 경쟁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경쟁 기업이나 교류 단체간 과당 경쟁은 교류(투자) 비용을 높이는 문제가 있으며, 자칫 남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대북 투자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남북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과당 경쟁은 자제되어야 한다.

넷째, 현대는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대북 사업이 남북 접촉과 경험의 긍정적인 선례로서 작용하도록 애써야 한다. 만약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해서 양측 경제 주체간에 호혜 관계가 구축되고 신뢰가 쌓아지며 북한이 그 이익을 체감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다른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남북의 신뢰 회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경험에서 개척자적인 위치에 있는 현대는 금강산 사업 등 그들의 대북 프로젝트를 남북 경험을 넘어서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의 전형을 창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경험 등 민간 교류가 책임있는 당국자간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간 교류가 남북간에 적대성을 해소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와 호혜적 관계를 제

도화하는 일은 당국의 몫이라는 점에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경험 주체들은 그들의 관계가 당국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오늘날 세계는 '脫냉전'과 '상호 의존의 세계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IMF 상황이 보여 주듯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면서 우리의 삶을 크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脫냉전과 세계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남북한 관계는 경제 중심의 실리적 국제 질서 속에서도 이념과 구원에 기초한 시대 착오적인 소모적인 적대적 경쟁을 지속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脫냉전의 세계사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은 물론 우리도 번영을 성취하며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종식할 남북 관계가 요청되는 시기에 있다. 이 남북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화와 화해 협력의 실현이다.

우리는 오늘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 관계를 실현하기 위

해서 그동안 북한의 공작 잠수정과 간첩선만이 불법적으로 오가던 해상분계선을 넘어서 평화의 유람선을 적극적으로 북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다 밑으로 북한의 공작 잠수정이 오가고 바다 위 해상분계선으로 우리의 평화의 유람선이 북상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해 있다. 물론 우리가 유람선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같은 해상 공간에서 공작선을 침투시키는 행위는 중지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유람선이 북한의 침투 빈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무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공작선 침투를 금강산 관광 무용론으로 치환시키는 조급함을 보여서는 안된다.

사실 우리는 북한의 공작선과 평화의 유람선이 교차하는 이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화해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에서 화해 협력 관계로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은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과도기를 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금강산 관광 사업은 그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영향 못지 않게 미래의 남북 관계

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금강산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선례가 이후 남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실현은 아직도 냉전적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남북 관계를 한 단계 이상 점프시킨 매우 고무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마 이 사업은 현대그룹 특유의 추진력과 창조적 정책 사고 능력이 없었으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갖은 곡절 속에서도 정경 분리 원칙을 의연히 견지한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현대뿐만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사업을 21세기 남북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교류의 전형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저력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 9號